

인 사 말

아직은 쌀쌀한 기운이 남아 있지만, 어느덧 봄의 따듯한 기운이 다가 오면서 새로운 생명의 싹을 틔우고 있습니다. 이런 시절에 종단의 지도자 스님들이 우리 종단의 현재를 되돌아보면서 미래의 싹을 틔우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게 되어 더욱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올해는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지도자들을 선택하는 두 차례의 선거가 있습니다. 선거과정에서 사회의 변화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요구와 주장이 분출하면서, 소통과 화합이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더욱 부각될 것입니다.

또한 올해는 통합종단 출범 50주년을 맞이하여, 종단운영의 최우선 가치로서 ‘국민의 행복과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정진하는 한해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내부적으로 자성과 쇄신을 통한 한국불교 중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대외적으로 국민과 사회로부터 신뢰받고 존경받는 종교로서 거듭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이번 우리 종단 지도자연수는 이웃종단인 천태종과 진각종을 방문하고, 원불교의 현황을 이해하는 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 종단은 우리 종단에 비해 비록 역사가 짧고 규모도 작지만 수십년간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최근에는 한국사회에서 새로운 리더로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성장에 담겨있는 내면의 원동력을 이해하면서, 우리 종단이 배울 부분은 배우고 이웃 종단과의 상호 협조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 땅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번 연수의 모토는 “국민의 행복과 평화를 위한 종단 지도자 연수”입니다. 이웃종교의 이해와 배움을 통한 소통을 기초로 하여 사회와의

소통과 상생을 도모하는 자리입니다. 종단간 그리고 종교간 이해와 협력은 모든 종교인들의 행복과 평화로 연결될 것이며, 이것이 사회로 확대되어 국민의 평화와 행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연수를 통해 이웃 종단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역사와 사회에 부응하고, 국민의 행복과 평화를 위한 종단운영 시스템의 질적 변화의 계기를 만드는 단초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불기2556(2012)년 3월 15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